

국립 박물관의 연대기적 변화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ronological Changes of National Museums in Korea

Author 김승욱 Kim, Seung Wook / 정희원,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전임강사

Abstract The museum architecture has been developed with new social and cultural movement because of the its representative role of cultural character. After emergence of the modern museum in Korea, the function and role of the museum has been changed and developed especially after increasing role by local government. The cultural desire by the new pace of consumerism has requested museums to undergo with some changes and advancements in their function and programs.

This research aims to examine the progress of museum programs in Korea even though it has sort history. The scope of the analysis is discussed the extension of existing and new national museums which could be the measurement of the direction of the policy for museum. These changes have a tendency to correspond to social and cultural demands. Based on the existing program, new programs accommodate education and services which represent the characteristic of the museums. These changes caused the extension of the existing museums and the emergence of the small museums which has special program fields and even influences to expand existing museums for sub-characters.

The study for chronological changes could be useful to establish the basic guidelines of the configuration for the museum program and space in the early stages for the new construction.

Keywords 국립박물관, 프로그램, 건축공간
National Museum, Program, Architectural Space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근대적 의미의 박물관¹⁾ 건축은 18세기 초에 들어서부터이다. 당시 계몽주의 사상의 등장과 함께 상류계층들이 전유하던 지식과 문화를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리려는 취지에서 새로운 개념으로 출발하게 되었으며, 이때 이를 위한 단일용도의 건물로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²⁾하였다.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박물관 건축은 매시기마다 새로운 흐름과 함께 하여 왔으며, 어느 시대에서나 특별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현재에도 진보를 리드하는 건축 작업은 대개가 박물관 건축이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문화사적 의미에서 박물관 건축이 한 시대의 사회문화적 면모를 대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국내 박물관 건축의 변천과정도 마찬가지이다. 구한말

근대적 의미의 박물관 출현과 함께, 1970년대 이르러 각 지방에 국립박물관이 자리 잡아 가면서, 지역의 문화적 중심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리고 80-90년대를 거치면서 양적 증대와 함께 보다 다양화하고 복합화 되었다.

근대 박물관을 가지기 시작한지 100년을 넘긴 시점에서 '리움'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새로운 박물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국내 박물관 열풍은 일부 지역에 머무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체 이후로는 더욱 더 전국적으로 새로운 박물관의 모색이나 기존의 박물관의 탈바꿈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박물관의 변화의 노력은 폭넓게 증가하는 대중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함이다.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 지표³⁾들이 그것을 반영하고 있고, 새로운 관객

1) 넓은 의미에서 박물관은 미술관을 포함한다.

2) Pevsner, N. A History of Building Typ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3)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문화향수실태조사, 2000

2000년 이후 주요 전시회 관람객수, 각 주요 전시관 파악 내용

* 이 논문은 2007년 고려대학교 특별연구비에 의하여 수행 되었음.

개발의 측면에서 관련 전문가들의 연구⁴⁾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급속하게 변화하는 문화소비욕구의 증대는 박물관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고, 선구적인 몇몇 박물관을 필두로 그러한 변화의 폭을 수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러한 노력의 결과 이제는 많은 박물관들 스스로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 및 박물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도 변모를 꾀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박물관의 역사가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당한 변화의 폭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 변화를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 변화로써 파악하고자 한다. 그 사회적 역할이 변함에 따라 박물관이 수용하는 기능 프로그램이 변화하고 결과적으로 건축공간이 그에 대응한다는 의미에서 본 연구는 국립박물관들을 대상으로 연대기적 변화특성을 파악하고 앞으로 등장할 국내박물관의 계획에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연구의 내용은 국내 박물관의 발전과정에서 프로그램의 변천사를 추적하고 그 다음, 건축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그러나 각각의 박물관에서도 시간적으로 여러 차례의 프로그램의 성장과 변화를 겪는 점을 고려할 때, 전체 박물관의 프로그램 변화의 추이를 모두 관찰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한편 복잡한 내용을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각각의 박물관 건립에는 중요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나름의 전략이 있을 것이다. 그러한 전략은 각기 다른 '지역사회 문화의 중심지' 또는 '사회교육기관'이라는 주제로써 다른 박물관과 차별을 꾀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러 박물관을 구별할 수 있는 전략적 프로그램들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최근 박물관들은 웹사이트를 이용한 홈페이지 구축에 정성을 쏟고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박물관에 대한 소개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각 박물관이 소개하는 인터넷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 기존 문헌을 통해 시대별 성공사례 및 우수사례를 구분하고, 구분된 각 박물관별로 홈페이지를 통해 프로그램들을 조사하여 전략적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특히 70년대 개관하였지만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는 박물관의 경우((구)국립부여박물관, (구)국립공주박물관)은 건축도면의 표기되어 있는 실명과 옛 기록 등을 통해 당시 프

로그램을 조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그리고 파악한 프로그램과 건축공간을 대응시켜 프로그램의 변천이 건축공간에 어떤 방법으로 영향을 주었으며 그 범위는 어떠한지 살펴서, 국내 박물관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발전되어 왔는지 판단해 보고자 한다.

1.3. 분석 대상 사례의 선정

박물관 등록현황에 따르면 국내 박물관은 전체 579개⁵⁾이다. 그리고 박물관은 성격별로 국립, 공립, 사립/법인, 대학박물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국·공립 박물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왜냐하면, 국내 박물관의 역사에서 국·공립 박물관이 박물관 발전과정에서 선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러한 위상을 고려할 때 우선적인 대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박물관의 성격은 전시 성격에 따라가기 마련인데, 최근의 박물관 주제가 다양화되고 전문화되는 추세에서 서로 상이한 주제는 비교의 대상을 혼란하게 할 수 있기도 하다. 국공립 박물관은 대부분 역사계 종합 박물관⁶⁾으로써 전시 성격이 비슷하다.

분석대상은 1970년대 초기 박물관들에서부터, 2000년대 최근의 박물관에 이르기까지 시기의 박물관을 포함하고, 국내 국공립 박물관 중에서 박물관 발전과정에서 우선적인 박물관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사례분석 대상 박물관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분석 대상 박물관 개요

박물관 명	개관년도	연면적(㎡)	규모
(구)국립부여박물관	1971년	1,080	지상2층/지하1층
(구)국립공주박물관	1973년	2,030	지상2층/지하1층
국립경주박물관	1975년	11,055	지상2층/지하1층
국립광주박물관	1978년	7,488	지상2층/지하4층
국립청주박물관	1987년	5,943	지상2층/지하1층
국립전주박물관	1990년	8,030	지상2층/지하1층
국립대구박물관	1994년	10,070	지상2층/지하1층
경기도립박물관	1996년	9,861	지상3층/지하1층
국립김해박물관	1998년	9,574	지상3층/지하1층
서울역사박물관	2002년	19,358	지상2층/지하1층
국립춘천박물관	2002년	10,117	지상2층/지하1층

2. 이론적 고찰

2.1. 현대 박물관의 기능과 역할

2000-2001 덕수궁미술관(인상파와 근대미술전) 30만명
 2002-2003 서울시립미술관(장 프랑수아 밀레전) 26만명
 2002-2003 국립서울과학관(인체의 신비전) 200만명
 4) 정미경, 한국 문화소비자의 특성과 관객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004

5)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문화기반 시설총량 2009
 6) 이보아, 박물관학 개론, 김영사, 2003, pp.24-27

1974년 제 9차 ICOM(국제 박물관 협의회) 총회⁷⁾에서 '박물관은 사회를 위하여, 그리고 사회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비영리 상설기관'이라 주장한 이래, 현재 박물관은 사회교육의 공공문화시설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현대 박물관⁸⁾의 기능과 역할을 네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1) 교육, 연구기관으로서의 박물관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과 학술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로 구분할 수 있다. 교육기관으로서 박물관은 시민교육기관이라는 본래의 박물관 설립취지를 극대화하는 방향을 의미하며, 평생교육기관으로서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역할과 의무를 가진다. 반면 학술연구기관으로서 박물관은 수준 높은 조사연구를 통해 전시, 출판, 교육활동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생산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사환경의 질적 개선과 함께 전문 연구인력의 양성과 재교육이 필요하다.

(2) 문화재 보호기관 및 타임캡슐로서의 박물관

지금까지 박물관이라면 막연하게 오래된 것들을 모아둔 곳이라는 인식이 강한 만큼 박물관은 문화유산의 보호 기구라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제는 단순히 과거의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과거의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 자연환경에 대한 보존과 보호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더 나아가 과거만이 아니라 현대사회와 인류의 미래에 대한 문화를 남길 수 있는 타임캡슐의 역할을 더 강조하여야 할 것이다.

(3) 박물관의 전문성과 다양화 경향

박물관은 규모나 크기로서 평가하기보다는 독특한 성격과 구성, 그리고 박물관 기능에 의한 분류를 더 중요하게 이르렀으며 특히 성격이나 기능의 다양화는 주목할 만하다. 특히 사립박물관을 중심으로 하는 특정 주제를 가진 박물관들은 국내 박물관의 다양화 경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주제가 다양해지고 주제별 전문화되는 이러한 경향은 더욱더 많은 관람객들이 박물관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되고,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될 것으로 평가된다.

(4) 공공기관, 여가선용 기관으로서의 박물관

박물관은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공공의 시설이다. 다양한 분류의 사람들이 박물관을 찾고 있으며,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박물관에 초대하기 위해서는 박물관 스스로 변해야 한다. 박물관의 전시가 재미있고 유익할수록 정신적 포만감과 육체적 피로감을 불러일으키는데, 흔히 이것을 '박물관 피로'라는 말로 대변한다. 전시품의 환경이나 크기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밀려오는 박물관 피로는 잠깐의 기분 전환으로 곧 회복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박물관은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배려하여 휴게용 공간과 식당 등의 운영이 요구된다. 그리고 그러한 시설을 활용하여 음악, 연극, 무용, 영화 감상, 패션 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충분히 박물관을 즐기면서 지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

또한 문화공간을 향유하려는 시민 의식에 발맞추어 복합적인 문화공간으로서 시설을 갖추어 항상 국민들이 문화전반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 박물관은 더 이상 진열한 다음, 와서 봐주기만을 기다리는 시기는 지나갔다. 박물관은 전시 이외에 문화적인 행사를 개최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며 여가를 선용하는 대표적인 기구로서의 기능을 다해야 한다. 미국의 국립박물관 홀이 대통령의 취임축하 무도회장으로 쓰이는 경우는 널리 알려진 일이다. 따라서 박물관은 복합 문화시설로서의 기능을 갖추도록 기획되어야 한다.

2.2. 박물관의 프로그램

(1) 프로그램의 의미변화

프로그램은 18세기 중반 사회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기능을 가진 건물이 필요해지면서부터 등장하였다. 병원, 박물관, 감옥 등의 새로운 시설을 사회의 요구에 맞게 만들려면 그 세부적인 목록이 필요했고, 건축가들은 이 목록을 건축화 하였다. 하지만 이 시대 프로그램은 시설에 맞는 유형을 만드는데 주로 사용되어 건축가의 프로그램 해석은 각 건물유형(building type)을 발전시켜 양식을 확립하는데 적용되었다.

20세기에 근대건축은 과거의 양식을 거부하여 프로그램을 기능으로 대치한다. 근대 건축가들은 과거와는 다른 건축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과 근대적인 정신인 합리성을 기반에 두고, 기능을 중요시하여, 형태도 기능에 의해 만들었다. 형태와 기능간의 관계에 대한 집착은 설리반의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라는 말로 대표되는 기능주의로 나타난다.

현대 건축에서 프로그램은 두 가지 의미로 통용된다. 그 중 하나는 포괄적인 의미의 프로그램으로서 시설과 관련되어 있다. 주어진 프로그램이 미술관, 병원, 학교인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다른 하나의 의미는 줄리안 구아데의 설명과 같이 건물이 담아야 하는 세부적인 용도들의 목록과 그 면적들을 포함한다.

(2) 건축에서 프로그램의 의미

건축에서의 프로그램의 의미는 기능적인 목록으로서 건물의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인간의 활동을 고려하며, 또한 '시설'로서 사회와 건축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프로그램'이라는 말은 이 중 하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이 의미들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프로그램은 단순

7) ICOM(International Council of the Museum); 1946년에 UNESCO에서 조직한 국제 박물관 협의 기구

8) 문화체육부, 21세기 박물관 발전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1997

히 기능에 관한 것이 아니며 그것은 인간의 생활과 그리고 인간들의 집합체인 사회와 항상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⁹⁾

(3) 박물관의 프로그램

박물관의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는 서상우¹⁰⁾를 시작으로 최근 신축국립중앙박물관에 적용된 개념까지로 파악할 수 있다.

서상우에 의한 개념은 연구부문, 수장부문, 전시부문, 교육·보급 부문으로 구분하였으며 이용자 편의 시설을 교육보급부문에 포함시킨 것이 특징이다.

신축국립중앙박물관의 개념은 관람객 편의영역, 전시영역, 교육영역, 수장영역, 연구/관리영역, 유지관리영역, 부대시설, 공용공간으로 세분화되었으며, 관람객편의영역이 분리된 것이 특징이다.

본 연구의 박물관의 프로그램은 신축국립중앙박물관의 구분개념을 바탕으로 한다. 그것은 총8개로 세분화되어 있으나 관람객편의영역, 전시영역, 교육영역, 연구/관리영역의 총4개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 ① 관람객편의영역 : 매표소, 안내소, 물품보관소, 주출입구홀, 로비, 중앙홀, 뮤지엄샵 및 기념품판매소, 식당 및 카페테리아, 서점, 휴게실, 탁아실 등
- ② 전시영역 : 기획전시실, 상설전시실, 전시홀, 전시관련 준비실 및 창고 등
- ③ 교육영역 : 오리엔테이션 홀, 강의실, 강당, 도서열람실, 시청각자료실 등
- ④ 연구/관리영역 : 사무실, 연구시설, 세미나실, 수장고, 보존처리실, 하해장 등

2.3. 국내 현대박물관의 발전과정

서상우는 그의 저서 '한국의 박물관·미술관(기문당, 1995)'에서 국내 박물관의 발전과정을 근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정리를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박물관 역사에서 특징으로 발견되는 시기를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구분하였다.

(1) 1971-1985: 수집·전시·관리기능 위주의 박물관

5·16혁명이후 국가경제재건의 우선적인 상황에서 문화건축에의 투자는 여의치 않았다. 그러나 민족문화 예술의 재건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일어나는 가운데 1974-78 사이에 문예중흥계획이 시행되었고 몇 개의 기념비적 박물관이 건립되었다. 이것은 선열의 업적을 기록하고 국민적 자긍심을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기간에 건립된 대부분의 박물관은 전시위주의 공간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대표 박물관

국립종합박물관(현재는 국립민속박물관으로 개축됨, 1966-72, 서울소재), 국립부여박물관(현재는 신축 박물관 건립으로 문화재연구소로 사용됨, 1965-71, 부여소재), 국립공주박물관(현재는 신축 박물관 건립됨, 1970-73, 공주소재), 부산시립박물관(1975-1978, 부산소재), 국립광주박물관(1977-1978, 광주광역시소재), 국립경주박물관(1975, 경주소재)

(2) 1986-1995: 박물관법 제정과 적극적 문화정책

1984년 박물관법이 제정되어 1985년에 공포되고, 같은 해 7월에 박물관 시행규칙이 만들어졌다. 비로소 용어의 정립 및 사업의 내용이 규정되었지만 건축적인 연구의 대상으로서는 본격적으로 시도되지 않은 시기라서 시설의 구체적 기준 및 전문적인 영역의 구분 등은 여전히 불완전한 시기였다. 그러나 지방 국립박물관 건립을 중심으로 선구적인 노력이 이루어졌고, 국내 박물관은 형식과 내용면에서 다채로워졌다.

- 대표 박물관

국립전주박물관(1987-90, 전주), 독립기념관(1982-1987, 천안), 전쟁기념관(1989-1994, 서울), 국립현대미술관(1982-1986, 과천), 국립대구박물관(1989-1994, 대구), 국립부여박물관(1990-1993, 부여), 국립중앙과학관(1983-1990, 대덕),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1977-1984, 제주), 국립진주박물관(1979-1984, 진주), 국립청주박물관(1987, 청주)

(3) 1996-현재: 프로그래밍과 박물관 건축

전문적인 방법론에 의해 결정된 프로그램과, 학예사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박물관 건축에 참여하여 박물관의 사회교육 및 관람객 서비스와 같은 적극적 기능의 수용을 가져왔다. 국립중앙박물관의 건립을 경험하면서 박물관의 건축적 연구는 일대 황금기를 맞기도 한다. 이제 박물관은 전시·수집 측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공문화시설로서 일반대중에 가까이 가는 사회적 역할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 대표 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1998, 김해), 경기도립박물관(1996, 용인), 부산시립미술관(1998, 부산), 서울역사박물관(2002, 서울), 태백석탄박물관(1997, 태백), 국립춘천박물관(2002, 춘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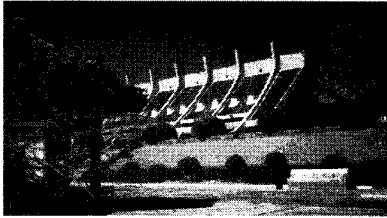
3. 사례대상 분석

3.1. 1970-1985

(1) (구)국립부여박물관

9) 최교식, 현대 건축의 프로그램 해석에 관한 연구, 2001, 서울대 석론

10) 서상우, 한국박물관건축학회 초대회장



개 요	
위 치:	충남 부여
개관년도:	1971년
연 면 적:	1,080㎡
건 축 가:	김수근
규 모:	지상2/지하1층

<그림 1> (구)국립부여박물관 전경

이 박물관은 우리나라 공공박물관사에서 가장 앞선 시기에 설립되어 백제 유적지에서 출토된 각종 백제 계통 유물을 소장·전시하고 있었다.

1945년 8월 국립박물관 부여분관으로 개편된 이래, 1975년 8월 직제개편으로 국립부여박물관으로 승격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건축가 김수근의 설계로 신축되었지만, 전통표현의 왜색(倭色)시비는 사회·문화·예술 전반에 논쟁이 되기도 하였다.

전시공간의 협소로 1993년, 새로운 신관이 다른 장소에 신축되면서, 현재 이 구관은 부여문화재연구소로 이용되고 있다.

2005년에 있었던 증축으로 인하여 연구와 교육프로그램이 강화되었고 그에 대응하는 건축공간 역시 그 면적에 있어서 대폭 증가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이 변화되고 있으며 그에 건축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특히 2000년 중반부터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교육영역(study center)의 적극적 확대경향이 국내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2> (구)국립부여박물관(1971) 주요시설과 프로그램

주요 시설	전시실, 강당, 사무실, 수장고
주요 프로그램	유물 전시, 수집·보존, 조사연구

<표 3> 국립부여박물관(2005) 주요시설과 프로그램

주요 시설	전시동: 전시실, 영상실, 수장고, 사진실, 준비실 등 교육동: 문화체험교실, 교육실, 식당, 강당, 홀 등 관리동: 관장실, 회의실, 관리과, 학예연구, 보존과학실 등
주요 프로그램	전시(상설전시, 특별전시), 학술연구(유적발굴 및 조사연구, 발간, 보존과학), 교육행사(체험마당, 어린이박물관학교, 문화교육, 문화행사)

(2) 국립경주박물관



개 요	
위 치:	경북 경주
개관년도:	1975년
연 면 적:	11,055㎡
건 축 가:	이희태
규 모:	지상2/지하1층

<그림 2> 국립경주박물관 전경

한국의 역사와 전통 문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경주 지역의 유적 조사가 활발해짐에 따라 그 보존과 전시에 보다 넓은 공간이 필요하게 되어 1975년 현재의 자리에 국립경주박물관을 지었다. 1982년 안압지관, 1997년 미술관이 추가 건립되었다. 이때까지도 대부분의 공간이 전시기능을 위한 공간들로 구성되었다.

2005년 어린이박물관을 추가함으로써 일반 대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추가되고 그에 대응하는 건축공간들이 대폭 추가되었다. 앞의 사례와 유사하게 국내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이 교육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보여 진다. 현재 4개 동으로 구성되어 연면적 18,226㎡의 비교적 큰 박물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표 4> 국립경주박물관(1975) 주요시설과 프로그램

주요 시설	전시실, 사무실, 수장고
주요 프로그램	유물 전시, 수집·보존, 조사연구

<표 5> 국립경주박물관(2005) 주요시설과 프로그램

주요 시설	3개 상설전시관(고고관, 미술관, 안압지관), 특별전시관, 세미나실, 강당, 어린이박물관
주요 프로그램	전시(상설전시, 특별전시), 어린이박물관(체험학습장, 교육프로그램, 영상/음향자료), 문화마당(떡메치기, 송편빚기), 문화교육(어린이/청소년교실, 성인교실), 조사연구(유적조사, 학술대회, 학술교류, 보존처리, 도서발간)

3.2. 1986-1995

(1) 국립청주박물관



개 요	
위 치:	충북 청주
개관년도:	1987년
연 면 적:	5,942.6㎡
건 축 가:	김수근
규 모:	지상2/지하1층

<그림 3> 국립청주박물관 전경

1987년 9월 28일 개관된 국립청주박물관은 중원문화권(中原文化圈)에서 출토된 문화재를 체계적이고 교육적으로 전시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 지역의 박물관의 성격은 중앙박물관과 달리 타지역 문화와의 비교를 통한 지역특성을 부각시켜 중원문화의 특색을 잘 나타내고자 함이다.

건축물은 경사를 따라 전시공간들이 분동형식으로 지형에 순응하고 이들의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공간의 연속성을 유도한다.

교외입지로 인해 대중의 접근이 어렵고, 교육적 단체 관람과 주변의 휴식기능 유치욕구가 촉발되어 2005년 사회교육관 청명관이 증설되었다.

<표 6> 국립청주박물관 주요시설과 프로그램

주요 시설	전시실, 청명관(강당), 어린이박물관, 카페테리아, 기획전시실, 사무실, 수장고, 보존과학실, 정보자료실, 뮤지엄샵
주요 프로그램	전시(상설전시, 특별전시), 학술활동(학술조사연구, 유물관리, 자료발간), 교육문화마당(어린이문화재그리기대회, 박물관연구과정, 우리가족박물관공예교실, 어린이초청 박물관체험교실, 박물관가족음악회)
특성	청명관은 전시공간의 확충뿐만 아니라 어린이박물관을 비롯한 교육문화와 서비스를 위한 박물관의 적극적 공간마련으로 파악할 수 있다.

(2) 국립전주박물관



개요	
위치	전북 전주
개관년도	1990년
연면적	8,030㎡
건축가	이승우
규모	지상2/지하1층

<그림 4> 국립전주박물관 전경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중심기관으로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건립되었다. 도시공원 내 위치하여 대중의 접근이 용이한 이점이 있으며, 건립초기부터 다양한 서비스 시설을 구비하여 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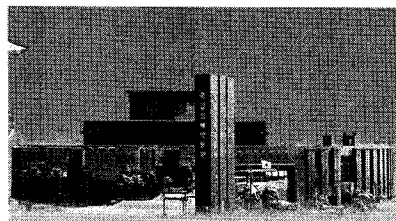
정문에서부터 강한 중심축을 가지고, 좌우로 대칭으로 배치한 점은 다소 경직되기 쉬우나, 분절형의 공간조직은 장래 확장과 변화에 대한 대응성을 부여하고 있다. 지역민의 교육적 체험을 위한 사회문화관을 2002년 개관하여 다양한 문화행사와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표 7> 국립전주박물관 주요시설과 프로그램

주요 시설	-본관: 고고실, 기획전시실(1층) 미술실, 민속실(2층) -사회교육관: 수장고, 유물정리실, 기획전시실, 석전기념실, 뮤지엄샵, 전북의 역사문화실, 체험학습실, 정보자료실
주요 프로그램	전시(상설전시, 특별전시), 박물관교육(문화유산대학), 조사연구(조사연구, 유물관리, 자료발간)
특성	국립청주박물관과 마찬가지로 사회교육관이 증설되어 다방면(전시+조사연구+체험교육)에서 박물관 프로그램을 풍성하게 하고 있다.

3.3. 1996-현재

(1) 국립김해박물관



개요	
위치	경남 김해
개관년도	1998년
연면적	9,574㎡
건축가	장세양
규모	지상3/지하1층

<그림 5> 국립김해박물관 전경

1998년 7월 29일, 국립김해박물관은 고대국가의 하나인 가야(加耶)의 문화유산을 집대성하기 위해 개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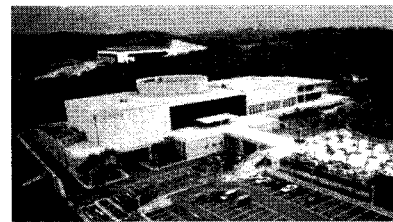
가야의 건국설화(建國說話)가 깃든 김해시 구지봉(龜旨峰) 기슭에 자리 잡은 국립김해박물관은 가야의 문화재를 집약 전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부산·경남 지역의 선사시대의 문화상과 가야의 성장 기반이 된 변한(弁韓)의 문화유산을 전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가야의 역사는 다른 고대 국가들에 비해 역사 기록으로 잘 남아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가야의 실체는 대부분 발굴조사 등의 고고학적 방법으로 찾아진 고대인들이 남겨놓은 유적과 유물을 통해 복원하여야 하고, 이러한 점에서 국립김해박물관은 다른 국립박물관들과 달리 고고학 중심의 전문 박물관으로 특성화되어 있다.

<표 8> 국립김해박물관 주요시설과 프로그램

주요 시설	전시실, 강당, 세미나실, 도서자료실, 수장고, 보존과학실, 사무실, 안내, 기념품판매소, 가야사랑방, 유아놀이방
주요 프로그램	전시(상설전시, 특별전시), 학술문화활동-도서발간, 유적학술조사, 사회문화교육(가야학아카데미, 어린이문화재그리기대회, 엄마와함께 하는박물관 교실, 낙도오지 어린이박물관문화체험, 일요일영화감상회)
특성	전시·교육·연구·관광객편의 영역의 고른 시설분포로 증개축의 필요보다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지역사회의 활성화에 매진하고 있다.

(2) 국립춘천박물관



개요	
위치	강원 춘천
개관년도	2002년
연면적	10,117㎡
건축가	
규모	지상2/지하1층

<그림 6> 국립춘천박물관 전경

강원도민의 오랜 열망 속에서 건립되어 2002년 10월 30일 문을 연 국립춘천박물관은 구석기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강원의 문화유산을 보존해 전시하고, 학술조사 연구와 사회교육을 수행하는 강원 문화유산의 보고이자 국가의 중추 문화기반시설이다.

첨단 전시기법과 설비운용을 바탕으로 21세기를 선도하는 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강원도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보존전시하고 연구함을 물론, 일반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하고 유익한 사회문화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여,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우수한 강원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이 되고자 한다.

<표 9> 국립추천박물관 주요시설과 프로그램

주요 시설	전시실, 강당, 세미나실, 자료실, 수장고, 보존과학실, 사무실, 비디오실, 안내, 유지엄습, 물품보관소, 카페테리아
주요 프로그램	전시(상설전시, 특별전시), 사회문화교육(어린이-박물관공예교실, 전통문화체험교실, 토요체험한마당, 어린이문화재그리기대회, 여름방학어린이서당, 산마을어린이초청문화체험, 2005찾아가는박물관, 일반인-성인문화교실, 자원봉사자양성교육, 토요문화강좌, 교사-박물관교원연수과정, 단체관람인물교사전시실교육과정), 학술문화활동(학술조사, 유물보존처리, 자료발간)
특성	전시·교육·연구·관람객편의 영역의 고른 시설분포, 최신의 전시기법과 설비 구축, 학교와 박물관교육의 연계프로그램 개발, 대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관람객편의시설 확충

4. 변천과정 파악

4.1.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국내 박물관 건축에 있어서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의 변화와 그에 따른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의 경우는 새로운 시설의 증개축 및 신축의 사건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조사결과 시설의 증설과 신축은 늘어나는 박물관 프로그램을 적절히 수용하기 위한 해결방법이었으며, 그 정도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사례대상 박물관 중에서 1971년부터 1994년까지 건립된 박물관은 모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박물관의 면적증대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박물관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의 산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 결과는 아래 <표 10>과 같다.

<표 10> 박물관별 증개축 개요

박물관명	개관년도	형식	내용	주요 프로그램	연면적	면적 변화
(구)국립부여박물관	1971	신축	-	-	1,080	8,419
(구)국립공주박물관	1973	//	-	-	2,030	11,816
국립경주박물관	1975	증축	전시관, 안압지관, 미술관, 어린이박물관	-	11,055	18,227
국립광주박물관	1978	증축	수장고, 사무동, 사회교육관	-	7,488	10,100
국립청주박물관	1987	증축	사회교육관	-	5,943	10,477
국립전주박물관	1990	증축	사회교육관	-	8,030	12,884
국립대구박물관	1994	증축	사회교육관	-	10,070	14,996
경기도립박물관	1996	-	-	뮤지엄아카데미, 전통민속놀이공원	9,861	-
국립김해박물관	1998	-	-	가야 아카데미, 영화감상회	9,574	-
서울역사박물관	2002	-	-	역사박물관대학	19,358	-
국립추천박물관	2002	-	-	문화대학, 찾아가는박물관	10,117	-

<표 10>의 결과를 토대로 시대별 특성을 분석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시대별 박물관의 변화양상

시대별 구분	변화 형식	주요시설 변화양상	주요프로그램의 변화양상
1970년대 초반	신축	새로운 현대적 박물관 건축물 건립	-
70's 후반-1985	증축	전시·연구관리·교육영역 전반으로 증대	-
1986-1995	증축	교육·관람객편의 영역 확장	박물관대학, 어린이박물관, 뮤지엄아카데미, 문화대학
1996-현재	-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음악회, 체험마당, 영화감상, 가족공예교실, 엄마와 함께하는 가족교실, 찾아가는 박물관

위의 <표 11>과 같은 구분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몇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먼저 현대 박물관이 공공성을 필두로 그 기능과 역할을 고려할 때 박물관의 모습은 대중의 문화·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그것의 방법을 찾기 위한 전문가 및 여러 사회집단의 노력의 결과라는 생각이 바탕이다. 즉, 박물관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며, 누가 만들어가는 것인가 하는 물음에 그 답이 있다. 앞서 이론적 고찰에서 언급했듯이 현대 박물관은 대중의 필요에 의해서 생겨났고, 대중의 요구에 서비스하는 공공기관의 성격이 강하다. 즉, 박물관의 발전은 박물관 건축과 사회문화적 변화요인의 상호작용의 결과물로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내 박물관 건축의 발전과정을 관찰해보면, 그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박물관 건축의 프로그램의 변천은 당시 사회문화적 변화요인과 관계가 있다.

4.2. 박물관 설립 요건 검토

(1) 국내 박물관 성립 정책

1991년 11월 30일 새롭게 제정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법률 제4410호) 제2조는 “박물관이란 인류·역사·고고·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전시하고, 이들을 조사·연구하여 문화·예술 및 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교육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박물관 사업이 한 나라의 문화상황을 대표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압축된 표현이다.

문화 예술 관련법령의 효시는 1948년에 제정된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운영규정이라고 할 수 있고, 제5공화국은 헌법 제8조에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헌정사상 처음으로 문화정책의지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당시 문화정책은 국가의 과시행정의 표상이었고, 대중이 참여하는 진정한 문화의 의미로써는 부족하였다.

박물관법은 1984년 제정되었고, 1991년 새로운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박물관법 제정 이후 건립된 박물관

의 성격은 이전 박물관과는 다른 모습을 띄게 되었고, 새로운 법령에 따라 이전 박물관은 증설되거나 신축되게 되었다.

예술문화관련 주요법령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960년 이전 법률: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운영규정(1948)
- 1960-70년: 공연법(61), 문화재보호법(62), 문화공보부발족(68)
- 1970-80년: 문화예술진흥법(72), 영화법개정(73), 공연법(개정)
- 1980-90년: 문화예술진흥법 개정(82), 저작권법 개정(86), 박물관법(84), 공연법 개정(81), 문화재보호법 개정(82,84), 박물관법 개정(91)

(2) 국내 박물관 유형별 시설기준

국내 박물관법에 의한 시설 기준은 아래 <표 12>와 같다. 이 기준에 의해 박물관의 시설은 충족되고 있으며, 그 안에서 현대 박물관의 여러 프로그램이 수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조사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례 대상 박물관의 경우, 시설 기준을 넘어서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응하는 공간이 창출되어 적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어린이 박물관과 사회교육원, 홀/로비 공간의 다양한 관람객 편의 시설(정보검색실, 물품보관소, 뮤지엄샵, 오리엔테이션 홀 등)이다. 이것은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박물관 프로그램이 시설적 증대를 꾀하고 있으며, 진정한 의미에서 대중을 위한 공공성 창출의 변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2> 박물관 유형별 시설기준

유형		시설기준
제 1 종	종합박물관	각 분야별 전문박물관의 당해 전시실 수장고 작업실(준비실) 사무실(연구실)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화재·도난방지시설, 온·습도조절장치
	전문박물관	100㎡ 이상 전시실(2,000㎡ 이상 야외전시실) 수장고 사무실(연구실)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화재·도난방지시설, 온·습도조절장치
	미술관	100㎡ 이상 전시실(2,000㎡ 이상 야외전시실) 수장고 사무실(연구실)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화재·도난방지시설, 온·습도조절장치
제 2 종	자료관, 사료관 유물관, 전시장 전시관, 향토관 교육관, 도서관 기념관, 보존소 민속관, 민속촌 문화관, 예술관	82㎡ 이상의 전시실 수장고 사무실(연구실·자료실·도서실 및 강당 중 1개 시설) 화재·도난방지시설, 온·습도조절장치

5. 결론

본 연구는 국내 박물관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통해서 그 사회적 역할의 변화와 그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의 생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그에 따른 다양한 공간의 출현과 면적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박물관의 프로그램은 몇몇 전문가나 특정 집단에 의해서 독점적으로 개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기호를 조사하고, 사회문화적 욕구를 반영하여, 보다 많은 관람객을 끌어들이려는 노력의

산물로 파악한다. 그리고 그러한 박물관 프로그램은 박물관 역사와 함께 변천되어 왔는데, 그러한 프로그램은 박물관 건축의 면적 증가에까지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

국내에서 현대적 박물관의 등장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급속하게 이루어져 왔지만, 그 시간동안 박물관의 발전과정은 그 무엇보다 눈부시다. 국내 박물관 건축의 선구적 역할을 이룬 국립 박물관의 경우, 그 변화과정을 살펴본 결과, 그 변화에 있어서 분명한 시기적 차이가 존재하고, 복잡하지만 나름대로의 단계적 과정을 밟아왔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1984년 제정된 박물관법은 이전과 다른 박물관을 가능케 하는 근거가 되었는데, 분명히 이시기의 박물관은 이전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는 건축물이었다. 이후 1991년 새로운 법령이 제정되기까지 계속된 기준이 되었고, 1990년 중반부터는 박물관 건축에 있어서 박물관 프로그램의 기본적 목적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그전까지 지어진 대부분의 박물관이 신축 또는 증축의 대폭적인 변화를 가졌지만, 1996년 경기도박물관부터는 건축물 내부적 변화는 있을지언정 면적이 증감되는 근본적인 변화를 관찰할 수 없는 이유에서 이다.

본 연구의 이러한 박물관의 연대기적 변화특성의 파악은 이후 신축될 박물관에 의미 있는 계획지침으로써 기여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1. Pevsner, N. A History of Building Typ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2. 김용승, 박물관의 개념적 변화와 건축적 대응(1)-(4), 월간 건축사, 396-399호, 2002
3. 문화체육부, 21세기 박물관 발전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1997
4. 문화체육부, 국립중앙박물관 기본계획 연구, 국립중앙박물관, 1995
5. 류민경, 국내 박물관 건축의 공간구성계획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론, 1998
6. 서상우, 한국의 박물관·미술관, 기문당, 1995
7. 이보아, 문화소비관점에서 접근한 박물관 관람객의 소비행태, 예술경영연구 제3집, 2003
8. 이보아, 박물관학 개론, 김영사, 2003
9. 이성훈, 한국 뮤지엄 건축의 100년과 비전, 한국 뮤지엄 건축의 현재와 미래, 2009
10. 이익주, 현대 박물관 프로그램과 공간구성의 대응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론, 2001
11. 정미경, 한국 문화소비자의 특성과 관객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004
12. 최교식, 현대 건축의 프로그램 해석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론, 2001
13.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문화향수실태조사, 2000
14. <http://www.museum.go.kr>

[논문접수 : 2010. 03. 30]
 [1차 심사 : 2010. 04. 16]
 [2차 심사 : 2010. 04. 29]
 [게재확정 : 2010. 05. 07]